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운영 기준 마련

전북대, 1.5단계까지 기본 대면수업... 비대면 결합한 '혼합수업' · 2.5단계까지 기본 비대면수업... 교과 특성 반영해 혼합

“학생들에게는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원들에게는 질 높은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까지는 대면 수업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비대면을 결합한 '혼합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예를 들어 수강인원이 강의실 수용 인원의 50%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수업을, 50% 초과인 경우엔 비대면수업으로 진행된다.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대면으로 이뤄진다.

다만, 교과 특성이나 교원-학생 간 소통에 따라 혼합수업도 가능하다. 또한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교과 특성 및 강의실 상황 등을 고려해 혼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실험·실습·실기 과목은 분부 승인 후 학장 책임 하에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학생 수강 편의와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학생들이 미리 수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교원이 희망하는 수업방식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과 LMS

를 활용해 교수-학생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해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과제만으로 이뤄지는 수업은 금지하도록 했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주당 1시간 이상 실시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는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원은 사전 강의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북대는 단계별 수업 방식에 따른 강의 질 제고를 위해 분부와 단계별 교수, 조교, 총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부는 수업 운영 전반의

지원과 관리를 맡고 단과대학에서는 소속 대학에 개설된 수업 운영 상황을 수시 점검해 학생과 교원의 애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 강의 전반의 질을 관리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일일 확진자 수 100명 이상)로 격상될 경우에는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다.

양규혁 교무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수업 방안을 마련했다”며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TFT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국제화 역량 '최고등급'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평가 우수인증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평가에서 국가거점국립대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는 교육 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는 제도다.

평가지표로는 필수지표인 불법 체류유과 대학의 국제화 사업 계획 및 인프라, 등록금부담률, 언어 능력, 만족도 및 관리 등이 있다.

전북대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입국 현황을 비롯한 자가

격리 및 방역지침 준수 등 대학의 위기 대처 능력을 인정받았다. 인증 대학 모니터링에서 모든 평가 지표를 통과해 인증을 유지하고 우수인증대학에도 선정됐다.

이번 우수 인증대학 선정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교육부 공식 사이트 등에公示되고, 법무부 소속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외국 정부 등에 '우수인증대학'으로 등록된 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VISA) 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GKS) 등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 부여 등 교육정책과 사업 등에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은성 기자

혁신교육 위해 '맞손'

도교육청-전주교대 협약

전북도교육청과 전주교육대학교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8일 도교육청 5층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김우영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으로 혁신교육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특히 전주교대 대학원에 혁신미래교육 전공과를 설치하는데 도교육청이 적극 협력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혁신교육 연구 활동 지원 ▲전라북도 혁신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교류 및 지원 ▲혁신미래교육 전공 설치 및 커리큘럼 운영 지원 ▲학술자료 및 학술정보 상호 교환 ▲혁신미래교육 관련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등에 협력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교육청과 전주교육대학교가 상호 협력하고,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우영 총장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여 년 동안 혁신교육 정책에 중점을 두고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전라북도 혁신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8일 5층 손님맞이방에서 미디어 교육 협력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위탁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도교육청-미디어교육 협력기관, 사업 위탁 협약

미디어 리터러시교육 활성화... 비판적 사고·주체적 참여하는 민주시민 육성 기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8일 5층 손님맞이방에서 미디어 교육 협력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위탁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분별력 있게 수용하는 민주 시민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위탁사업 협약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등 3개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사업 분야는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 운영 ▲교원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연수 ▲자료개발 및 실천연구 ▲사회참여형 학생 대상 공모사업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 미디어 시민교육 지원 등이다.

협약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며, 총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대면 소통, 정보공유의 평등성, 정보생산의 대중성이 강화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디지털 시민성이 요구됨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을 활성화 할 방침

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 환경 안에서 원활하게 읽고 쓰고 소통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역량으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 있게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과 지역활동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강화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분별력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8개 전문대학과 교육성과 공유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지난 1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전국 8개 전문대학과 교육성과 공유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비전대학을 비롯해 강원도립대학, 거제대학, 경인여자대학, 계명문화대학, 서일대학, 수원여자대학, 안산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이 참석했다.

협약식을 통해 9개 전문대학은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자료, 연구 성과 등 학술정보의 상호 교류 ▲교육 및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공동 기획 및 개발 ▲학생 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세미나,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의 공동개최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기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 등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홍순직 총장은 “지금은 9개 대학이 작은 불결로 시작하지만 개별대학의 장점들이 모여 커다란 불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특히 전문대학에서는 학생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해 전문대학 교육의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교육성과 분석이 그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 이후 전체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연구해 왔던 결과들을 공유하는 ‘전문대학 데이터 기반 교육성과 분석 포럼 성과 공유회’가 열렸다. 이 공유회에는 61개 전문대학 278명의 교수와 직원이 신청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1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전국 8개 전문대학과 교육성과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호원대, '실습 후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진행

호원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센터장 이미영)는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습 후 스트레스 경험 학생 대상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실습으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 지원, 실습 중 경험한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력 감소, 원만한 관계 형성 및 유지 교육, 코로나로 인한 외상이나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기관리, 미래에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과정 등 진행했다.

한편, 호원대학교는 앞으로도 재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과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사회적경제 성장 위한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전주대 LINC+사업단 사회적경제 RCC 포럼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송)은 지난 17일 전주시 라마다호텔에서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한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 RCC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LINC+사업단 김세곤 연구교수의 사회로 1부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을 위한 전북도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을 위한 전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 사례, 2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 사례', 3부 '전북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주대 이재민 교수의 사회적경제 혁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미래융합대학 창업경영금융학과와 사회적경제융합전공 운영, 지역 혁신센터 및 사회적경제협업센터의 혁신지원 사례, 군장대 양한숙 교수의 융합모형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휴먼융합학부 사회적경제과의 인재양성 사례, 기전대 박광철 교수는 사회적경제 맞춤 교육과정 통해 현장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을 비



전주대 LINC+사업단은 지난 17일 전주시 라마다호텔에서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한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 RCC 포럼을 개최했다.

전으로 2021년도 신규 개설된 사회적경제인재양성과의 사례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소속 단체에 대한 소개 및 주요 역할을 주제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이만음, 정유진 팀장, 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고은하 공동대표,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효진 센터장, 전북 사회적기업협회 회장 양홍철 회장, 전북 자활기업협회 관대현 회장, 전북 마을기업협회 정중국 회장, 전주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현주 팀장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3부에서는 전주대 지역혁신센터 한동승 센터장의 주제로 '전북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대학과 사회적경제 단체가 협력하고 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무를 공유하고 연계 추진하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정리하고 인력양성의 모델 수립하는 자리였다.

/장은성 기자

'리튬금속 이차전지' 수명·출력 개선 기술 개발

군산대 이경구 교수팀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이차전지로 꼽히는 '리튬금속 이차전지'의 수명과 출력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군산대학교 화학과 이경구 교수팀은 "기초과학연구원(IBS)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연구위원 광영원 고려대 화학과 교수)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리튬금속 이차전지의 수명 및 출력 성능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수팀에 따르면 기존 리튬이온전지에는 노트북, 휴대폰 등의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리튬금속이 적고 수명이 짧다는 한계로 인해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혁신을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와 달리 10배 이상 큰 저장용량을 가진 리튬금속을 사용하여 개발했다. 리튬금속전지는 리튬이온전지의 한계를 극복한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리튬금속전지 역시 충·방전

을 거둬들일수록 리튬금속 표면에 나뭇가지 모양의 수지상결정(dendrite)이 형성되어, 전지의 수명이 짧고, 화재나 폭발 등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드러났다.

또 수지상결정 형성은 리튬금속에 보호막을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높은 농도의 전해질을 사용하면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알려져 있으나 출력 성능 저하로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두 개의 전해질 염(LiPF₆과 LiTFSI)을 사용해 전지의 수명을 확보하는 물론 고성능의 출력을 낼 수 있는 기술을 순수 국내 연구로 개발했다.

리튬금속전지의 문제인 수지상결정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두개의 전해질 염을 활용하여 리튬금속 보호막을 제작하는 기술을 적용하게 됐다.

동시에 고농도 전해질의 한계였던 이온전도도는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인 5ms/cm 이상을 보여 출력 성능 역시 높였다.

/군산=남병봉 기자